



부안군의회, 강릉 산불 피해 구호물품 전달

17일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강릉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쌀 10kg 50포대를 강릉시의회에 전달했다.

지난 11일 강릉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인해 3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안군의회는 최근 강릉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하였으며, 품질 좋은 밭과 좋은 부안 쌀이 이재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강릉시 및 울릉도 등 일원에서 2023년 상반기 부안군의회 의정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6월 정례회를 앞두고 결산심사 및 군정질문 기법에 대한 의정 실무특강 일정과 울릉은 역사관 확립을 위한 울릉도·독도 방문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발생한 강릉시 산불 피해 지역 복구지원을 위해 일정을 추가 조정하게 됐다고 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장은 “이재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자 했다.”며, “이번 강릉시 구호 물품 전달을 계기로 상호 재난 상황에서 서로 돋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무주읍남성의용소방 짜장면봉사단 순회봉사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지역밀착형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지역사회 개발발전, 소외계층 인권신장, 인전문화, 환경보전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성있게 지원해 자원봉사분야별 활동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는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별 자생봉사단의 자발적인 활동과 활성화 기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재능기부 문화정착과 재난재해 및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골절, 회상 등 인전사고에 따른 피해사례들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응급처치 대응교육과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로 이웃들간의 소통이 단절된 문화를 회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읍남성의용소방 짜장면봉사단이 관내 중화요리 업종 분야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마을별 매월 1회씩 순회 방문해 15여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짜장면 및 군민들을 조리하여 배식하고 있으며 무주19안전센터와 연계,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강우 이사장은 “다양한 직업과 생활활동을 벗어나 모여진 자생봉사단에서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재능을 통한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센터가 노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남원경찰 금지파출소,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

남원경찰서 금지파출소(소장 이진기)는 지난 14일 자율방범대(대장 지능구)와 간담회 후 관내 취약지점을 순찰하고,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내 농산물 예방과 강·절도 사건 예방에 주력했다.

또한, 취약지역 및 농산물 절도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순찰을 펼쳤으며, 순찰 시 지역 주민들에게 보이스피싱 유형 및 방법 등을 설명하는 등 예방을 위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을 펼쳤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농산물, 경기 시흥시민들에 ‘호응’

금구면, 농특산물 홍보 행사 열고 고구마·감자·파프리카 등 선보여

김제시 금구면(면장 두일근)은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시 포동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7회 FC트롯퀴즈 연예인 초청 축구대회 및 불우이웃돕기 음식 바자회에 참여해 감자, 고구마, 파프리카, 쌀, 보리 등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여 김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흥시와 교류의 끈을 강화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최고의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지평선 공동 브랜드 농특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시립기부제 및 모의산 축제, 지평선 축제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해 도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FC트롯퀴즈 연예인 초청 축구대회 및 바자회는 김제시 금구면 출향인 오승석 대표(제4성상산업)가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시흥시 신현동 자원봉사사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축구 친선경기, 연예인 초청공연, 음식 바자회 및 체험 부스 등 다채롭고 흥겨운 축제로 진행되었으며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시흥시 1% 복지자금에 기부될 예정이다.

오승석 대표는 변함없는 나눔과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고향인 김제를 잊지 않고 고향 사랑 기부금 500만원 기탁, 불우이웃 후원 물품 기부, 농산물 직거래 구매, 이달 28일 개최될 앞둔 금구면 어르신 효친제 등 김제별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시흥시 행사 관계자는 “제철 맞은 신선 농산물을 수도권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면서 “김제 농특산물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인기가 많은 만큼 최고 품질의 농특산물을 좋은 가격에 접할 수 있는 장이 꾸준하게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두일근 금구면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명품 김제 농산물을 알리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자체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며, “시가 인증하는 품질인 만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김제 농특산물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김제경찰 신풍지구대, 베스트순찰팀 선정

김제경찰서(서장 김영록) 신풍지구대 순찰4팀이 23년 1분기 베스트순찰팀으로 선정됐다.

베스트순찰팀은 전북경찰청이 도내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을 대상으로 종교법인 겸거, 협장조치 우수사례, 고객만족도 등 주요항목을 평가해 가장 우수한 순찰팀을 선정하는 제도로 신풍지구대 순찰 4팀이 도내 2급지 경찰서 중 영예로운 1등을 차지해 전북경찰청장 표창 및 포상휴가를 수여받았다.

신풍지구대 순찰4팀(팀장 신훈삼 경감)은 아파트 내 택배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절도범 검거방안을 모색하면서 종 택배 절도범들의 상습적 습성을 알아내고 피해자 및 경찰서 형사팀과 협력, 잡복근무 중 현장에 나온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관내에서 연달아 발생한 택배 절도 14건을 한번에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읍면주전자, 수배자 겸거 등 우수사례 제출 다수팀으로 1분기 통안 경찰청장 장려장 2회, 경찰서장 표창 5회 수여받는 등 우수한 실적으로 다른 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 용담면민의 날 행사·용담호 봄꽃축제 성료

제27회 ‘용담면민의 날 행사 및 용담호 봄꽃축제’가 15일, 16일 이를 동안 용담면 체육공원 이외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춘성 진안군수, 김민규 군의장, 전용태 도의원, 군의원, 각 기관 사회단체장, 출향향우,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으며, 용담면 주민자치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바우미(공의장), 박봉수(애현장), 방상근(애현장)씨 등 3명에게 면민의 정이 수여됐다.

또한 용담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용담면 이용구 노인회장에게 안호영 국회의원상이 수여됐고, 용담면 이용소방대 이경철씨와 진안군청 진연호 팀장에게 각각 공로패와 감사패가 전달됐다.

저녁부터는 용담호 봄꽃축제 노래자랑이 시작됐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공연들과 볼거리가 다음날인 16일까지 이어졌다.

조영희 면장은 “올해 면민의 날에 그동안 애써 주신분들



게 감사의 뜻을 전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통해 면민들의 지친 일상을 위로하며, 서로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임실 삼계면민의 날 기념 축제 성황리

임실군 삼계면이 지난 15일 삼계초등학교 교정에서 열린 제39회 삼계면민의 날 기념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삼계면 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김민수, 이성재 군의장 및 의원들과 각 기관 사회단체장을 비롯해 면민 700여명이 제39회 면민의 날을 축하했다.

기념식에 이어 본 행사는 민속경기와 더불어 노래자랑과 행운권주첨, 초청 가수들이 축하공연 등을 통해 면민이 어우러져 친목을 다지는 화합의 정이 펼쳐졌다.

이날 면민 화합과 고향 발전에 기여한 김갑식·한병춘씨가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오영섭 씨가 공로패, 태정식씨가 효행상을 수상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칡덩굴로 월계관 만들어요’ … 무주국유림관리소, 프로그램 운영

“아이들과 놀이 통해 알아가는 시간 확대 진행”

실풍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실풍교육전문업 숲해설팀이 칡덩굴이 한반도 신립을 다룬다는 우려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칡덩굴로 월계관 만들어 봐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칡덩굴의 피해는 국유림 사유립 할 것 없이 연간 약 4만5천㏊의 면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숲속 도로변에 넘쳐나는 칡덩굴을 소재로 한 숲해설 프로그램은 지역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주순 더유신마루 대표는 “실풍지원의 유해종으로 꼽히거나 되어버린 칡덩굴이 곧게 자라서 훌륭한 재목으로 쓰일니지를 소리 없이 과롭하고 있다.”며 “아이들과 놀이를 통해



(clazz)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앞으로 확대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자
(053-912 진주군 7 간내부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35-4113
인천지사 246-6655
세종지사 255-2404
010-2333-4791
서산지사 272-9417
호남지사 010-835-9985

충남지사 010-938-6874
인후지사 56-1227
충북지사 632-0955
순천지사 633-0444
군산지사 010-678-0038
의성지사 658-6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6-3064
진주지사 566-3787
장수지사 010-582-0157
부안지사 010-245-4182
고성지사 563-6899

일본지사 010-962-2725
진주시 433-3064
장수군 566-3787
무주군 010-220-4253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소방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간담회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17일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관련 교육 및 재발 방지 당부를 위해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소방인전관리자)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물건 적치, 노면 표시 훠손 등으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2018년 8월 10일 이후 신축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 장소에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 표지 훠손으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에 과태료 50만원, 2회 이상 적용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설치 진행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17일 관내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설치를 연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인전취약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화재 시 자력대피가 곤란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유도와 초기소화를 통해 인명피해를 저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2년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재실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화재인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들이 없도록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알림

▲제3회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문화예술공연 = 일시: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전주종합경기장(축구장 1층), 주최: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조직위원회, 주관: 전북장애인복지문화연구소·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문의: 063-286-6678 · 231-6669